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1월 17일 - 1월 21일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오프닝 행사

1월 17일(월)~18일(화), All day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1월 19일(수), 13:30 ~ 16:30

주최 | 권인숙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홍정민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원 | 교육부

미디어교육 국제세미나

1월 20일(목), 16:30~19:40

주최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인교육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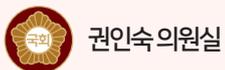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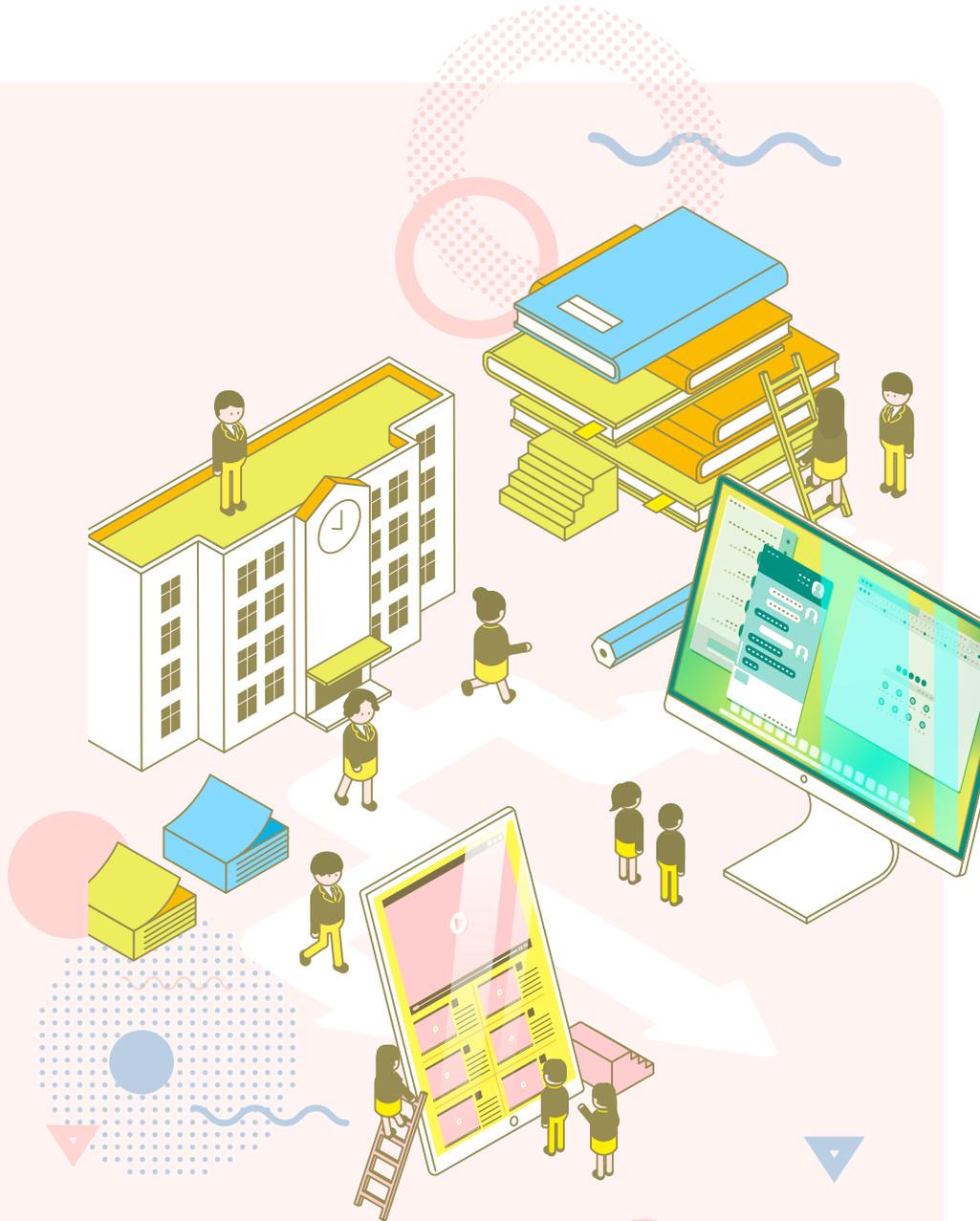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디어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1월 21일(금), 13:30 ~ 17:30

주최 | 교육부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1월 17일 - 1월 21일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오프닝 행사

1월 17일(월)~18일(화), All day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1월 19일(수), 13:30 ~ 16:30

주최 | 권인숙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홍정민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원 | 교육부

미디어교육 국제세미나

1월 20일(목), 16:30~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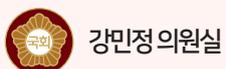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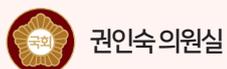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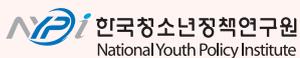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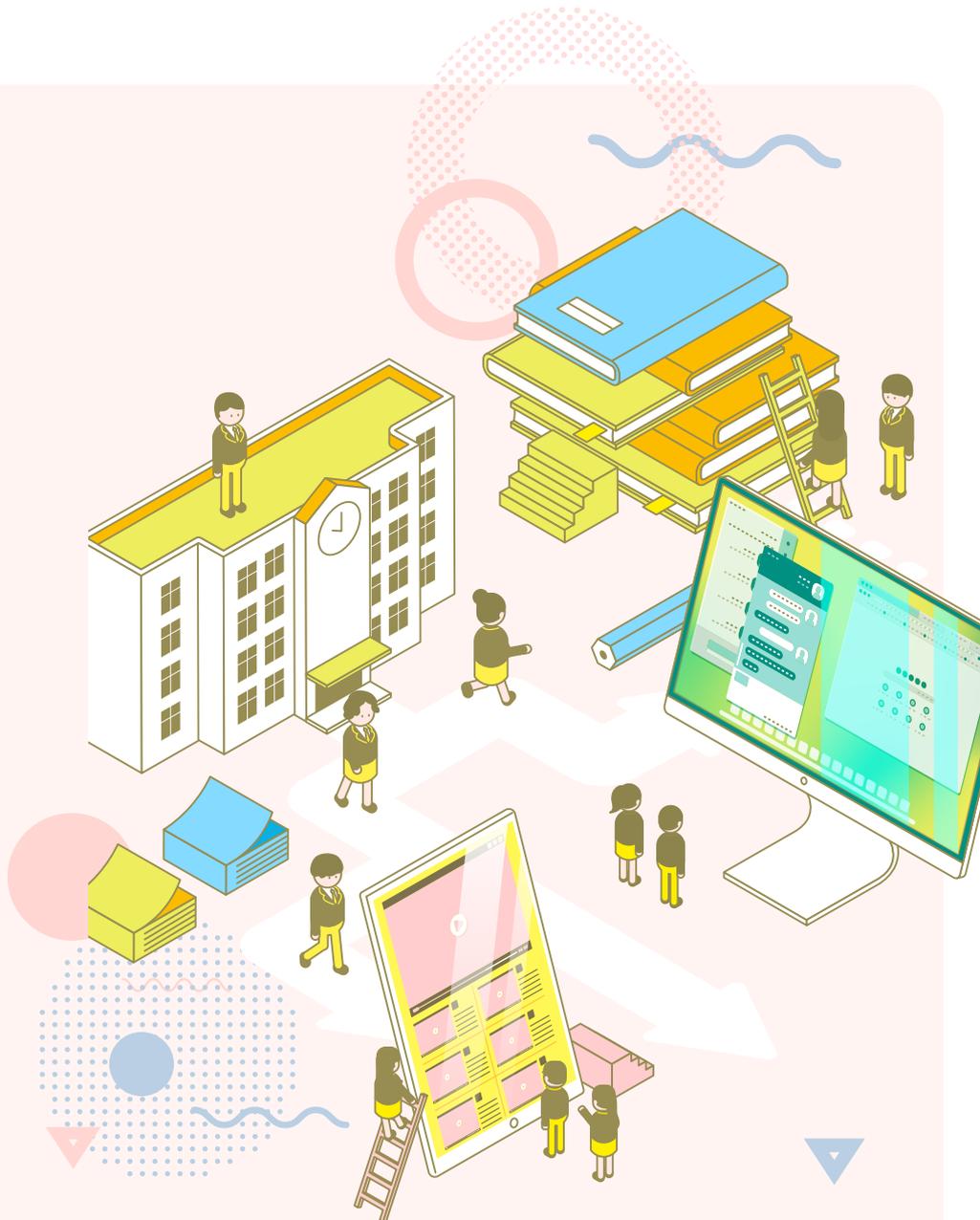
주최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인교육대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디어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1월 21일(금), 13:30 ~ 17:30

주최 | 교육부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1월 19일)

I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사회: 권인숙의원실 이경민 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환영사: 권인숙 국회의원 □ 축 사: 강민정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14:2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20~14:50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연 정현선 (경인교육대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14:5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각 10분씩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1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 토론 2 김선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토론 3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4 오정훈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 토론 5 이수민 (효양고등학교 학생) □ 토론 6 이귀영 (양현고등학교 교사)
16:00~16:30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청중 질의응답



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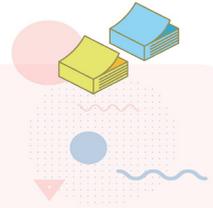
세상이 미디어를 만들어 가는지, 미디어가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디어의 영향력은 가공할만합니다. 신문이 탄생하고, 라디오가 탄생하고, TV가 탄생했을 때, 미디어는 그 때마다 세상을 크게 변화시켜왔고, 인터넷의 세상이 열리면서 인류의 일상은 더 급속히 미디어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미디어는 이제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가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자연스럽게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게 되고,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도 급성장했지만, 막상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원주민을 디지털 이주민이 가르쳐야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을 단순히 미디어 활용 교육법으로 보자면 이 딜레마는 심각한 것일 겁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이주민이 언어를 가르치는 꼴이 될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에 덜 익숙하다는 것보다는 여전히 고전적인 교육방법에 더 익숙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세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미디어 기술의 변화를 못 쫓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근대교육의 틀에 얽매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교육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디지털 세대가 맘껏 활개 치는 세상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늘 청소년문제와 교육문제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권인숙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홍정민 의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빛납니다. 학교미디어교육주간 행사를 미디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식견을 가지신 경인교육대 정현선 교수님의 주제강연으로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미디어교육정책을 만들어가시는 교육부 어효진 과장님과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의 김선화 교육연구사님, 오정훈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장님, 양현고등학교 이귀영 선생님, 이수민 학생의 토론이 결드려져 더욱 맛깔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추진력으로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미디어교육 전문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배상률 박사님과 연구진들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세대가 맘껏 활개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현철

환영사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2022 학교 미디어교육 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 정책세미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아주신 강민정, 홍정민 의원님과 세미나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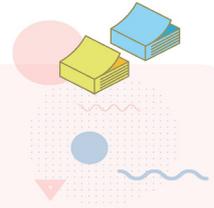
지난해 5월, OECD 주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보고서에서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릴 만큼 영유아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익숙하게 활용하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정작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의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소화하는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다행히도 작년 11월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초소양 중 하나로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교과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처별로 분절적·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작년 7월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미디어교육 추진체계 정비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오늘 세미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해오신 전문가 여러분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등 구체적인 시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이 학생들의 삶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정현선 교수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이창호 선임연구위원님을 비롯해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학교 미디어교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한층 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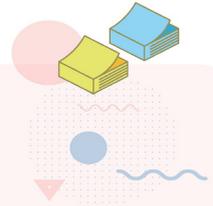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미디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또 일상이 미디어가 되어버린 요즘 같은 시대 미디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만들어주신 권인숙, 홍정민 의원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새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사회, 발표, 토론 등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들이 각양각색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생산, 소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기존과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유해 정보 노출, 타인 권리 침해, 사이버 범죄와 같은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더욱 급격하게 이루어질 텐데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적극적 주체이자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고, 작년에는 미디어 교육 통합지원 포털 ‘미리네’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도 미디어 교육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으며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를 건립하는 등 미디어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고민,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고,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해지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이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잘 소비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물질적, 제도적, 교육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아이들이 쏟아지는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속에 스스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며,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평등’에서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이르기까지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실제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러한 미디어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나누어 주신 말씀들 새겨듣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두 함께 이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미디어교육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세미나를 주최 해주신 권인숙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부를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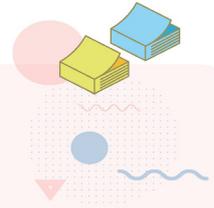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온 요즘 청소년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합니다. 유튜브로 정보를 찾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판적인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제정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적인 관련 기반 구축과 학교 현장 안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소중한 지혜들이 모여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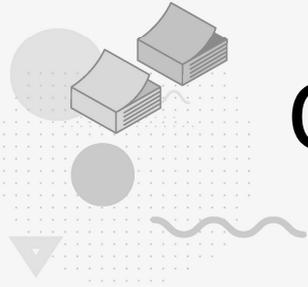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하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정민**



CONTENTS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1
정현선 | 경인교육대 교수·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장

토론

- 좌장 이창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어효진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39
2. 김선화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41
3. 배상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5
4. 오정훈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51
5. 이수민 | 효양고등학교 학생 57
6. 이귀영 | 양현고등학교 교사 59



주제발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정 현 선

경인교육대 교수·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장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¹⁾

I. 서론

1. 디지털 환경의 학교미디어교육 및 시민 교육의 국제 동향 및 요구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원격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의 시민역량으로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교육 선진국들에서는 최근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단행하면서,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멀티 리터러시(multiliteracies)’, ‘리터러시(literacy)’, ‘의사소통, 협력과 정보 기술’ 등 미디어 리터러시와 직접 관련된 새로운 학습 영역을 설정하고,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 개발, 교재 및 온라인 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 유네스코(UNESC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같은 세계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교사교육 및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UNESCO, 2011; UNESCO, 2013; EC, 2013; UNESCO, 2015).

□ 2021년 3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오프라인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1)를 발표하여,

- 어린이·청소년이 디지털 격차로 인한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의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1) 이 발표문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정현선·김아미, 2021, 성공회대학교)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정현선·장은주, 2021,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하고,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혐오 등 각종 위협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포함한 정책 수립 및 입법 추진을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에 권고하였다.²⁾

- 한국 정부도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발표한 협정 당사국으로서, 적절한 입법·정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당사자인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부모, 양육자, 교사, 청소년지도자, 정책추진자, 일반 시민 등의 인식 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 디지털 기기 보급 및 원격교육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학생의 디지털 격차와 학력 격차 및 디지털 환경의 시민 역량의 차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 2000년대 전후에 출생한 학생을 ‘디지털 원주민’³⁾이라 부르기도 하나, 같은 세대 내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며, 지역, 문화, 가정, 경제적 배경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자기조절능력, 윤리적 이용, 창의적 제작 능력,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시민적 참여 태도 등을 기르는 학교 교육의 책무가 부각되고 있다.

- “읽기 방식이 디지털 및 영상 문화 기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OECD, 2021)⁴⁾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에서 디지털 환경에 존재하는 온라인 위협으로 제시한 온라인 혐오, 도박,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는 기술 활용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민 역량 교육의 영역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문화 및 윤리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 기존의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미디어 이용 조절,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개인의 윤리를 다루었다면, 현재 디지털 시민성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자세, 사회참여 등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은 만 18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의미함.

3)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은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대를 의미함.

4) OECD 2018 PISA 읽기 결과 분석 자료에서, ①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성적은 높은 편이나(514점, OECD평균 487점)이나 사실/의견을 판단하는 능력은 매우 저조하고(25.6%, OECD 평균 47%), ② 디지털 접근성은 높고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60%), 학교에서 정보의 주관성·편향성 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한국 49.1%, OECD 평균 54.5%).

2. 국내 학교미디어교육 정책 추진 동향 및 부모들의 요구

□ 우리나라의 학교미디어교육 정책은 교육부의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발표 (민주시민교육과, 2019)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법률 제18459 호, 2022년 3월 25일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 및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교육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미디어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내실화 하기 위해 ‘미디어 문해력’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연도	정책연구 및 관련 주요 사업	담당부서 및 기관
2015	미디어 문해력(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정정책과
2016	초·중등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단원 개발 연구	교과서정책과
2017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학교 운영	교육과정정책과
2019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발표	민주시민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시민역량 제고 방안 연구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민주시민교육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교대 6교, 사대 6교)	민주시민교육과
2020	교원 및 예비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미디어교육센터 건립 공모 사업	민주시민교육과
2021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민주시민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회정책조정지원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진행 중)	민주시민교육과

[표 1]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부의 주요 정책연구 및 사업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표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제시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조항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국회에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7.14. 발의, 의안번호 11508)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 경기, 부산, 전남, 광주, 서울, 제주⁵⁾, 대전, 충남, 인천, 전북 등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타 시·도에서도 미디어 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디어”란 방송·통신·신문·잡지·출판·영화·광고·인터넷 등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도구·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하며 정보 형태를 불문한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미디어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디어”란 <u>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이용, 문화생활을 매개하는 도구, 표현 수단, 기기,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공간 및 내용물을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을 아우른다.</u>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조절·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 <u>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u> 3. “학교 미디어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는 모든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표 3] 시·도 교육청의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 주요 내용 예시

□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 과몰입이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크고, 학생 스스로 미디어 이용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으며, 가정 내에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적절한 지도 방법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5)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함.

- 교육부에서 학부모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미디어 교육 설문조사에 따르면⁶⁾, 학부모들은 자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거나(29.8%) 부적절한 언어 습관이 형성되는(19.5%) 것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디어 과몰입 예방 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은 데 비해, 적절한 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36.5%) 가정 내 미디어 교육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에서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 교육을(40.1%) 강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서도 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의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외, 2020). 또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적절하게 지도하는 경우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등 특정 미디어에 대한 집착 경향성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그러나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20)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어린 자녀에 대한 미디어 이용의 감독은 자주 하는 데 반해, 미디어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화 및 지도는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과 더불어, 가정-학교를 연계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이 종합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6) 조사 기간 : 2020.9.9.-9.15, 조사 방법 : 학부모모니터단(학부모온누리) 통한 온라인 설문
 참여자 : 교사 123명 및 학부모 718명

II.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미디어교육의 과제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2021.11.24.)에서는 민주 시민교육의 시민 가치를 교육 목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 기준을 모든 교과 내용 요소로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미디어교육을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 총론과 교과별 정책연구진 공청회 및 교육과정 심의 등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매체 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다.

<p>○ 총론과 교과별 정책연구진 공청회 및 교육과정 심의 등</p> <p>※ 교과별 재구조화, 특수교육, 총론 주요사항 설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공청회 등 총 9회('21.9.~10.)</p> <p>※ (대국민 의견수렴) 에듀넷·티-클리어 누리집을 통해 공청회(안) 공유 및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학습량 적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대입과 연계한 교과 교육과정 설계 필요 등 (9.14.) ● 매체교육 강화, 교과목 명칭 적합성 및 내용체계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9.17./ 9.23.) ● 범교과 학습 주제 과다로 인한 학교 현장 어려움 해소 필요,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등 의견제시(10.15.) ●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 적정화, 사회과 재구조화 방향, 한국사 필수학습유지 등 의견(10.8./10.22.) ● 총론에 환경교육의 반영이 필수, 미래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지속가능한 학습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생성해서 공유하고 논증하는 활동과 탐구의 과정을 경험 중요(온라인 참여 의견) ●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은 필요, 시대적 요구와 미래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볼 때 배운 내용에 대한 실천이 중요(에듀넷·티-클리어 누리집 의견)
--

[표 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의 대국민 의견 수렴(교육부, 2021.11.24.)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에 추구하는 인간상의 핵심 가치에 ‘포용성과 시민성’을 포함하고,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교육목표를 개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총론과 교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언어 소양’과 ‘디지털 소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 (교육목표) 학교급별 학생 발달단계 및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고 교육적 인간상,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육 목표 체계화

- (개선안) 환경·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기초소양)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총론과 교과에 반영**

기초소양	개념(안)
언어 소양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수리 소양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
디지털 소양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

[표 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의 ‘민주시민교육’ 및 ‘기초소양’ 관련 내용 (교육부, 2021.11.24.)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진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에 시민 가치를 반영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기준(안)을 개발하여 모든 교과와 연계하도록 하고, ‘내용 요소’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모든 교과에서 관련 핵심 내용 체계 제시, 교과 내용 재구조화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을 검토하도록 한 점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민주시민교육 교육 목표 및 내용 기준(안)								
<p>◆ 민주시민교육의 시민 가치를 교육 목표에 반영(예시)</p> <p>⇒ 현행 교육목표에 진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수정·보완</p> <table border="1"> <thead> <tr> <th>초등학교</th> <th>중학교</th> <th>고등학교</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td> <td>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td> <td>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td> </tr> </tbody> </tabl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p>◆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기준(안) 개발 ⇒ 모든 교과와 연계</p> <p>- [주요 영역] ▲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 ▲ 비판적 사고 ▲ 민주적 의사결정 ▲ 시민의 참여와 실천 등</p> <p>- [내용 요소] ▲ 문화 다양성 ▲ 미디어 리터러시 ▲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 지역 및 국가공동체 참여와 실천 등</p>								

[표 6]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교육부, 2021.11.24.)

- 초등학교 3~6학년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여건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선택과목(활동)을 신설·운영할 수 있게 한 점(초등 학년별 선택과목 2개 운영 가능, 3-6학년 총 8개 과목 운영 가능)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긍정적인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활용(안) (교육부, 2021.11.24.)

-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융합 선택’ 영역이 신설되고(‘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내·교과간 주제 융합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국어과 융합 선택 과목에 ‘매체 의사소통’이 신설된 점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독립 선택 과목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 보통 교과 (※ 향후 논의를 통해 과목명 등 조정 가능)

교과(군)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 1, 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 1, 2 (기본수학 1, 2)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영어	공통영어 1, 2 (기본영어 1, 2)	영어Ⅰ, 영어Ⅱ,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사회 (역사/도덕포함)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표 8] 고등학교 보통 교과(안) (교육부, 2021.11.24.)

- 이와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교미디어교육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발전이 실제 학교 현장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미디어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학교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의 인식과 정책 추진 현황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원활한 정책 추진 협조와 실행을 통해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 관련 주요 개념어와 각 개념 간 관계를 명료화하고, 각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정책의 실행 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목적에서 경인교육대학교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에서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및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의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 관련 주요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가 및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워크숍 진행(총 3회, 2021년 9월~10월), 사전 설문을 통한 시도 교육청 담당자의 요구 분석(총 11명 응답), 사후 인터뷰를 통한 요구 수렴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정현선·김아미, 2021).

□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의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 업무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한 사전 설문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 내용의 중요도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인식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업무 설명
 - 해당 업무 수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 염려되는 점, 잘해 보고 싶은 점 등
 - 워크숍에 기대하는 바
-

[표 9]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의 사전 설문 문항 내용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내용의 중요도

-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광범위한 학습 주제 및 내용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사전 설문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내용을 나열하고, 각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시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 이용 시간 조절	효과적인 정보 검색과 선택
디지털 미디어 기기 활용방법 습득	디지털 정보의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미디어 이용 윤리와 법규범 이해 및 적용	미디어에 나타난 사회 쟁점과 이슈 이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디지털 글쓰기와 콘텐츠 생산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전문성 판단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
미디어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디어 이용자로서 자기 성찰
디지털 발자국과 평판 관리	미디어 표현 방식과 특성 이해
소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과 의사소통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이해
미디어콘텐츠의 감상과 향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미디어 내용의 정확한 이해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표 10]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다양한 학습 주제와 내용 요소

- 응답을 분석한 결과 11명의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 및 '매우 중요')고 선택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선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속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는 선택한 응답자 수임). 이 내용은 위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항목들이다.

-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전문성 판단 (9)
- 미디어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9)
- 미디어 이용 시간 조절 (7)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7)
- 미디어 내용의 정확한 이해 (6)
- 효과적인 정보 검색과 선택 (6)
- 미디어에 나타난 사회 쟁점과 이슈 이해 (6)

[표 11]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의 사전 설문 응답 결과 1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도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 가운데 접근 역량에 해당하는 미디어 이용 시간 조절,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효과적인 정보 검색과 선택, 비판적 이해 역량에 해당하는 미디어 내용의 정확한 이해,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전문성 판단, 미디어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디어에 나타난 사회 쟁점과 이슈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이러한 사전 설문 결과는 현재 시도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이 기초적인 미디어 접근 역량 및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리고 미디어의 내용을 통한 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 미디어 이용 윤리와 법 규범 이해 및 적용, 디지털 발자국과 평판 관리, 소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과 의사소통, 디지털 정보의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미디어 이용자로서의 자기 성찰과 사회 참여,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이해,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 이에 대하여 응답자 11명 모두 다양한 지식과 기능, 태도 요소를 제안하였다.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과 응답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속 숫자는 응답 횟수).

미디어 및 정보 활용 능력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6)
 비판적 사고력 (5)
 미디어 및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이해 (4)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진위 분별 (3)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이해 (2)
 소통 (비대면 소통 포함) 능력 (2)
 성찰하는 태도 (2)

[표 12]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의 사전 설문 응답 결과 2

- 그 외에 단수로 제시된 응답은 다음과 같다.

가상세계에서 자기 정체성 확립
 미디어는 현실을 '재현'함을 이해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 습득
 맥락을 이해하는 태도
 본질을 탐구하려는 태도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윤리적 사용 태도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
 디지털 시민역량
 협력적 태도

[표 13]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의 사전 설문 응답 결과 3

- 이러한 결과는 앞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미디어 및 정보 활용 능력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미디어 및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

다. 그 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학생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더 중시해서 대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담당 업무 및 업무 추진 시 어려움

- 워크숍 참여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미디어교육 관련된 업무를 담당 혹은 총괄자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설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미디어교육 전반'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미디어교육에 관한 업무가 중앙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업무를 단 한 명의 담당자가 총괄하기에는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혹은 추진계획) 수립
 교육자료 개발 및 개발 지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수립 및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미디어 리터러시 동아리 운영
 교원 연수

[표 14]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의 사전 설문 응답 결과 4

-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현장 지원, 학습자 동아리 지원 및 교육자 역량 지원, 지역 연계 등의 업무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 설문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크게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개념 이해가 부족한 것과 2) 미디어교육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사전 설문에서 시도 미디어교육 담당 장학사들은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현장에 잘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단위 학교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
 시도 교육청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업무 담당자 간 네트워크
 (미디어교육 자료 기획, 사업 운영 공동 진행)

[표 15]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의 사전 설문 응답 결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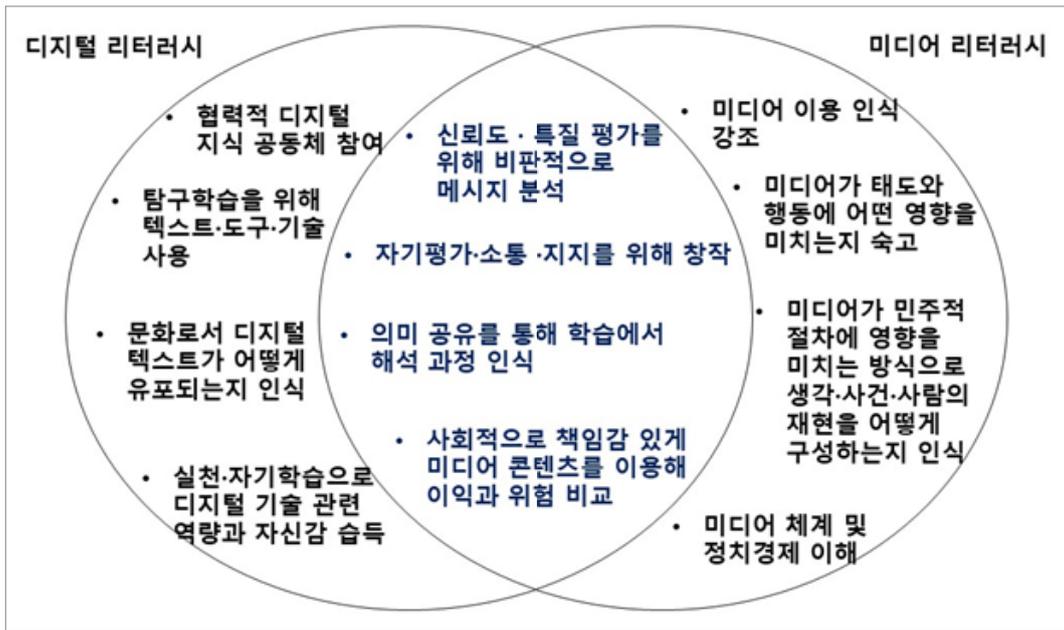
□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도움

- 사전 설문에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도움을 얻고 싶다고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이해 공유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 강화하기 위한 방안
 학교 미디어교육의 범위에 대한 결정과 공유 (예를 들어, 학교 미디어교육 내용 범위 및 방향성, 민주 시민교육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정보통신윤리교육과의 관계 설정 등)
 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관련 조례가 통과된 시도의 경우에도 그 범위가 너무 넓은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보다 분명한 범위 설정이 필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과정 연계 방안 공유
 학교급별 미디어교육 내용 위계화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다른 교육청에서는 관련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획 마련

[표 16]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의 사전 설문 응답 결과 6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에서 디지털 환경의 특징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미디어교육이 요청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교육 역시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 및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협력적 디지털 지식 공동체에 참여하여 차별 없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미래 시민을 기르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표 17]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비교 · 대조(Hobbs, 2018)

□ 이러한 변화는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의 소속 부서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교육부를 통해 전달받은 2021년 9월 1일자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의 소속 부서와 직급은 다음과 같다.

순	소속	부서	직급
	9	경기	민주시민교육과
1	10	강원	민주시민교육과
2	11	충북	미래인재과
3	12	충남	민주시민교육과
4	13	전북	민주시민교육과
5	14	전남	민주시민생활교육과
6	15	경북	학생생활과
7	16	경남	창의인재과
8	17	제주	미래인재교육과

[표 17] 시도 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담당자의 소속 및 직급

-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의 소속 부서는 1)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생활과 등에서 담당하는 곳이 총 7곳(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2) 교육혁신, 미래인재, 융합인재, 창의인재, 미래교육, 미래인재 등의 핵심어를 지닌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총 7곳(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북, 경남), 3) 교육과

정을 다루는 중등교육과 및 원격교육 담당부서에서 미디어교육을 다루는 경우가 총 3곳(인천, 광주, 대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사회 변화에 따른 미디어와 미디어교육의 개념 변화 및 영역 확장, 지역적 특성 및 시도 교육청 고유의 정책 맥락에 따라 미디어교육의 초점이 다르게 설정된 결과로, 디지털 환경의 학교미디어교육이 상당히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 그러나 교육부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다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미디어교육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면서 담당 부서 또한 이질성을 갖게 된 것은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의 원활한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의 진단 및 요구

□ 총 3회에 걸친 시도 미디어교육 담당 장학사 대상 워크숍 이후, 사후 인터뷰 또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진단 및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다음은 그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인프라 지원 필요

-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역량 강화 및 학교 컨설팅을 위한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위한 전문가 등의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 인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 및 정착을 위한 방안 필요

-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일방적인 정책으로 비추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교사, 부모 등 교육 주체들에 대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
-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특히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잘 녹아들어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제정 추진 중인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 및 학교 미디어교육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3. 협력적 ‘미디어교육’ 업무 추진 필요

-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교집합을 지니는 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시도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초중등 교육과정과 등 관련 부서 간의 협력적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 관련 부서의 협력적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 담당자를 한 명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도 교육청 간 미디어교육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4. 학교 미디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 필요

- 학교 미디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물적 인프라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시도 교육청의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함께 활용 가능한 물적 인프라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3.5.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교육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및 공유 필요

-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현장 지원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업무담당자 및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 다양한 교육 사례 개발 및 공유를 통한 현장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3.6.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사례 개발 및 연수 필요

- 학교급별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사례 개발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섬세한' 반영이 필요하다.
- 교육과정 총론에서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연구진에서는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 장학사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성 및 인적 인프라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패들렛'에 워크숍 자료 및 다양한 미디어교육 자료와 정보를 탑재하여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8] 2021 시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담당 장학사 및 연구사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https://padlet.com/hyeonseon/3cugmt9oj04bq786>)

- 각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변경됨을 고려할 때, 향후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정책 및 관련 이론적 개념과 연구 및 국제 동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및 교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현행 학교미디어교육 정책의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 요소

- 앞서 논의한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미디어교육 정책 현황을 강점 및 기회, 그리고 약점 및 위협의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우선 현행 학교미디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강점과 기회를 지니고 있다.
 - 총 10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에 의해 경기, 충북, 대구 교육청에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있다.
 - 디지털 환경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약칭: 원격교육법) 제정 등으로 인해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원격교육법은 2021년 9월에 제정되었고, 2022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2021.11.)에서도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조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전 교과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 교육과정 고시 및 후속 정책 추진이 2022-2023년에 이어지면서 학교 미디어교육도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원격교육 상황에서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온라인 예절,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성 이해 등이 강조된 것 역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민과 교사집단, 공공기관의 경험이 축적되어 양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환경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반면, 현행 학교미디어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은 약점과 위협을 지니고 있다.
 - 학교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역별 인식 및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한다. 시도별 미디어교육 담당 부서가 민주시민교육, 미래교육, 중등교육 등으로 상이한 점은 교육 자치의 확대 속에서 지역의 여건과 교육 정책의 특성을 반영해 미디어교육을 다양하게 실천한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 물론 디지털 환경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영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도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성 및 디지털 소양의 함양을 지향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미디어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교육부 및 교육청의 조직 체계에서 특정 부서에 한정하여 업무를 전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 그러나 이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개념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거나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어렵게 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에도 어려움이 생겨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사이버 폭력, 디지털 범죄 등 디지털 환경의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미흡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디어 과몰입과 문해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는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국가, 기업, 사회, 일반 시민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 개별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고립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대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날카로운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내용 및 방식을 교육부의 조직체계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현행 교육부 조직에는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사이버 폭력’을 담당하는 부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개의 국에 속해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력해야 할 디지털 기기 과몰입·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는 불분명하다.

- 교육부 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음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은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학생 생활에서 디지털 기기 과몰입·과의존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나 기관이 교육청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파편적이고 부수적인 업무가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룰 전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이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유사하거나 서로 연계된 교육 내용이 교육부 내의 별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시도 교육청 및 학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과 성장을 중심에 놓고 볼 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교미디어교육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앞서 제시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 미디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교육부의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미디어교육 전담 기관 지정 또는 설치

□ 국가 수준에서 장기적인 미디어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점검하고 시도 간 균형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외 미디어교육 정책 분석,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연계 방안 마련, 교육 현황 조사, 유네스코,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 등 교육부의 학교미디어교육 정책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전담기관이 필요하다.

-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등은 지역 현안과 여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미디어교육(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포함)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부는 이러한 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문화체육관광부),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언론, 방송, 디지털 정책 및 상담 등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제29조 1에 따르면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제31조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를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이외에도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미디어교육팀을 설치하고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국제교류, 교사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언론인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복합 교육 공간인 ‘미디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학생, 학부모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며,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교육 분야의 중앙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아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방송법 제90조의 2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전국의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영상 제작 등의 학교 미디어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이들 기관은 언론, 방송 등 특정 미디어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교사, 학생, 부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전문 강사 양성 및 파견, 교재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과 교육 및 교과 연계 학습을 중심으로 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연구 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 따라서 원격교육법 제정 및 이 법령에 명시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의무화를 근거로 하여 교육부와 협력하여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할 전문성 있는 국책 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미디어교육의 경우 현재 해당 분야의 교원자격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업무 담당자는 특정 부서에 일시적으로 배치되거나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담 정책 연구 기관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정책 연구 전담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안) 학교 미디어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2019년~현재까지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 그러므로 3년 이상의 체계적·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정책 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공모 등의 방식으로 혹은 업무를 분담하여 복수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한 관련 정책과 입법의 추진을 협약 당사국에 권고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사회정책협력 담당 부서에서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한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위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의 제8조의 2의 3항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에 대응하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학생, 교사,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을 할 수 있다.

-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2항과 제3항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및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관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 및 사업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표 19] 청소년기본법의 관련 조항

- (2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담당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련 부서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안이다.

[해외 사례] 교육부 산하기관의 미디어교육 지원

- (핀란드) 국립시청각센터(KAVI) : 교재 개발, 미디어스쿨 운영,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아카이브 운영
- (프랑스) 국립미디어교육센터(CLEMI) : 미디어 교육과정 및 평가모형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 교재 제작, 언론주간 운영
- (대만) 국립교육원 : 학교 미디어교육과 사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구단'을 설립하여,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 연구를 추진⁷⁾

[표 20] 해외 국가들의 교육부 산하기관을 통한 미디어교육 지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정보 및 디지털 환경 구축 등에 치중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원격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업무 연계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원격교육기본법' 제10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사업)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을 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사업)]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표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관련 조항

-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7.14. 발의, 의안번호 11508) 입법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하여, 이 법안에서도 위에 제시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한 정책 연구 기관 지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二. 國立教育研究院建置「媒體素養教育研究小組」, 支援學校和社會教育之媒體素養教育的落實, 並推動經常性、政策性的媒體素養教育研究。(대만 교육부, 2002:20)

2) 교육부 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전담 부서 신설 및 민주시민교육 정책 연계

□ 미래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또한 원격교육기본법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의무화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부 내 담당부서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담당 인력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에서 강조된 ‘언어 소양’, ‘디지털 소양’, 기존의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국제 사회의 정책 동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디지털 환경의 아동 권리 및 국가의 문해 교육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으로서 시민을 기르기 위한 기본 문해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 호주, 핀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야 할 학생의 문해력과 관련하여, 핵심 역량으로서 ‘리터러시’, ‘멀티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개념을 통해 시민이 갖추어야 할 비판적 문해력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정의하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교육부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방안’(2019)을 이제 원격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종합 계획’(안) 등 3년 정도의 주기를 지닌 정기적인 기본 계획 수립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종합계획에서는 주요 개념으로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역량’으로서 ‘디지털 시민 역량’ 개념을 제시하고, 디지털 시민 역량과 활용, 생산 역량이 결합하여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에 따른 4개의 전략과 정책의 주안점 및 핵심과제 가치를 설정하여 3년간 추진하였으며, 2022년부터 적용될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전략
 - 전략 1: 역기능 방지에서 역량 강화로의 적극적 예방
 - 전략 2: 예방, 회복, 성장으로 이어지는 역기능 대응 체계 구축
 - 전략 3: 가정, 학교, 사회의 지원 환경 기반 강화
 - 전략 4: 국민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 정보 공유
- 정책의 주안점 및 핵심과제
 -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정보와 역기능 양상에 선제적 대응
 - 정보화 역기능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 국민이 정책 기획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끊임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기관 협력 체계 표준화

[표 22] 제4차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주요 내용

-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변화된 국제 정책 동향 및 타 부처의 관련 정책과의 협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미래교육 및 원격교육의 국가적 과제를 시민의 문해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정기적인 수립과 시행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문해력을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종합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부는 이와 같은 종합 계획의 추진을 통해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정책 용어를 통일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사 및 부모와 일반 시민들의 개념 혼란을 방지하고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문해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현재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용어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 ‘미디어 문식성’, ‘미디어 소양’, ‘미디어 역량’,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매체이해력’,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등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침을 계기로 교육부에서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문해 교육의 목표를 담은 일관된 정책 용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접근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 정보나 내용물을 창의적으로 생산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

	↓	↓	↓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	“미디어 소양”	“미디어 역량”
정의	·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기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우리말샘)	· 문해력(文解力):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표준국어대사전)	· 소양(素養): ㉠ 평소 닦아 놓은 학문이나 지식. (표준국어대사전) ㉡ 교과외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다루는 능력 (교육부, 2021)	· 역량(力量): ㉠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표준국어대사전) ㉡ 리터러시를 근간으로 하여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자신의 능력들을 끌어내어 복합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맥락이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 (교육부, 2021)
특징	·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리터러시 개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보편적인 문서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원격교육기본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사용함. · 기초적인 문자 해독 능력에 한정되어 문자 이외 다양한 기호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뜻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식 또는 교양을 순화한 표현임. · 기능, 태도, 가치 등을 종합하는 의미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지식, 기능, 태도를 아우르는 보편적 용어임. · “디지털 포용 정책”의 ‘디지털 역량’과 구분 가능
법령 및 정책 용례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4항 10.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경기, 제주, 인천, 충남교육청 조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원격교육법 제10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 평생교육법 제2조 “문자해독교육”(이하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함.	· 교육부(2021) ‘기초/언어/수리/디지털/데이터 소양’	· 관계부처 합동(2020a) “디지털 역량” · 관계부처 합동(2020b)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비고			· 대만, 홍콩, 일본	· 독일, 스페인

[표 23]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 사용의 사례(정현선 · 장은주, 2021)

3)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정책 개발과 사업 및 시도 간 교류를 위한 학교 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현재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충북, 대구, 경기 지역에 학교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예정이며('22. 대구, '23. 충북, 경기), 부산⁸⁾ 등 타 시도에서도 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 혹은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 시도 교육청 산하의 학교 미디어교육센터는 지역 거점형 교육기관으로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 추진 및 사업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미디어교육센터는 교육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미디어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사 교육, 지역 내 미디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대학 및 연구자-학교 및 교원-학부모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학생의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활동 결과물 전시·공유 등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소통과 참여 활동을 익히고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미디어교육 분야의 교육 활동이 풍부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등 인적 구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시도교육청의 예산 및 인력 운용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각 시도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간 정기적 업무 협의를 통해 센터 운영을 위한 정보 및 자원 공유, 각 센터별 특성 분화(변별)가 필요하다.

시도	총사업비 (특교예산)	특징	개관 시기 (예정)	담당부서
충북	187억원 (35억원)	○ 사회적 감성능력 형성을 위한 미디어교육 - 청소년 사회참여형 미디어 프로젝트 운영 - 교육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미디어 공간 운영	'23.12.	미래인재과 (교육연구정보원)
경기	171억원 (70억원)	○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 가상현실 및 1인스튜디오 등 미디어 체험 - 원격수업 역량 강화 위한 교원 연수	'23.9.	학교교육 과정과
대구	102억원 (35억원)	○ 예술 기반 창작 활동 연계 미디어교육 - 제작(메이커)·예술·매체(미디어) 교육 간 연계	'22.3.	융합인재과 생활문화과

[표 24] 시도별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개요(안)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7조(학교미디어교육센터) 참조

4) 단기적 정책 제언

위에서 제언한 내용은 법령 개정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교육과정, 원격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연계하는 미디어교육 업무 체계 확립

-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 자치가 점차 확대되는 교육 환경에서, 시도별로 미디어교육 담당부서가 상이하고 교육부에서도 부서별로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 현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디어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원격교육 담당 부서가 교육부 내에서도 별도로 존재하며,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해소, 사이버 도박, 게임 섯다운제 등 디지털 정책 관련 현안의 경우 교육부 내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 따라서 학교 미디어교육의 정책 및 업무 범위를 명료화하고 교육부와 타 부처 및 시도 교육청의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를 명료하게 연계하는 조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내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과’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 인력 및 예산을 조정하여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학교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원양성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시행 중인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 개발 성과의 후속 저치를 마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기본계획 등의 연장선 상에서 교원양성대학의 미디어교육 필수 과목을 운영을 혁신공유대학 모델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강화

- 원격교육법 시행('22.3.2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2022.11.14.)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 교과 내용 요소 반영 방침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전문직 대상의 연수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학교장 대상 연수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교과 교육과정 및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영하는 방안에 관련한 연수 및 자료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 가정 내 미디어교육 방법 및 지침 등 내용 포함

- 교육부 교육협력팀에서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 내 미디어교육 지원 및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통해 전문 인력⁹⁾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또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미디어 이용 특성에 대한 이해, 자녀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학부모 지침,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방안(예: 우리 동네 미디어 체험 기관,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

□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국제교류협력 추진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소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학교팀(교육본부)과 커뮤니케이션팀(과학문화본부) 간 협업 등을 통해 유네스코 협동학교(2021년 현재 592개교)의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국내외 청소년 간 미디어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도출·확산할 수 있다.
-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간 지속적·정기적 협업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운영을 확대함으로써¹⁰⁾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그밖에 예비교원 교육 및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예비교원의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 설립 추진 중인 미래교육센

9) 학부모On누리(<http://www.parents.go.kr/>)알림마당)학부모교육 전문강사풀 (현재 '미디어' 관련 강사는 등록되지 않음)

10)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발의, '21.7.14.)의 제13조(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2항 13. 미디어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참조

터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프로그램 반영

-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V.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원격교육 환경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미래 시민 역량의 함양은 학교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제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때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의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미디어교육 전담 기관 지정 또는 설치,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청소년기본법 부분 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부분 개정, 원격교육기본법 부분 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부 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전담 부서 신설 및 민주시민교육 정책 연계를 제안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미래 교육 정책의 일환 및 원격교육기본법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의무화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부 내 담당부서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담당 인력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원격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근거로 하여, 기존에 발표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방안’(2019)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종합 계획’(안) 등 3년 정도의 주기를 지닌 정기적인 기본 계획 수립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타 부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밖에 시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정책 개발과 사업 및 시도 간 교류를 위한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 원격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연계하는 미디어교육 업무 체계 확립, 가정 내 미디어교육 방법 및 지침 안내와 지원,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국제교류 협력 추진, 예비교원 교육 및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시민적 가치를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 배상률·이창호·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연구 1: 초등학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현선·김아미(2021).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성공회대학교.
- 정현선·장은주(2021). 이슈리포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조사분석 2020-04, 한국언론진흥재단.
- Hobbs, R.(2018). Media and Meaning-Making in the Fake News Age(email interview) by Alison Head & Margy MacMillan, Project Information Literacy, Smart Talk Interview, no. 29 (30 January 2018)
- OECD(2021). 21st-Century Readers :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ublished online, from <https://www.oecd.org/publications/21st-century-readers-a83d84cb-en.htm> (검색일자: 2021.9.16.).
- UNESCO(2011).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20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Policy and Strategy Guideline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2015). Fostering Citizenship through responsible Use of IC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토론

좌장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2. 김선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3.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 오정훈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5. 이수민

효양고등학교 학생

6. 이귀영

양현고등학교 교사



토 론 문

어 효 진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 선 화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2021년 11월 24일은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발자취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명시된 날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디어 교육은 몇 몇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들의 특별한 교육 우수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의미있고 흥미로우며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만한 교육이지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특별 이벤트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4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요소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배우게 될 것이다. 보편교육으로써의 미디어교육, 모든 학생을 위한 미디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학교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이 곧바로 전면 실시되고 활성화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다. 안 그래도 가르칠 내용이 포화상태인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고, 미디어 리터러시 라는 생소한 용어가 주는 혼란과 탐다운 방식의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까지 더해지면, 학교 미디어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교육과정 문서에만 존재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에서 오랫동안 미디어교육을 실천했던 교사였고, 지금은 미디어교육 학생교육과 교원연수,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입장에서 학교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온 것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필자가 소속된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은 충북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서 충북 도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교육부의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가칭)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계획서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학생중심 활동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창조적 표현과 공유를 통해 사회참여 역량을 기른다는 센터의 운영 목표가 명확했다. 하지만 센터 건물의 운곽을 그리고 거기에 채워 넣을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엇이고, 학교미디어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찾는 일은 버겁고 막중하기만 하다. 이 모든 고민의 원인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20여 년 전의 미디어교육이 주로 미디어제작교육을 의미했다면, 지금의 미디어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이와 맞물려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비판적 이해, 창조적 표현, 사회참여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르쳐야 할 범위가 넓어졌고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더 큰 문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창조적 표현 영역에 비해 비판적 이해와 사회참여 영역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뚜렷하지 않다는(혹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이 주최한 미디어교육세미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비판적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참여한 교사들을 반성하게 한 적이 있다. 미디어교육의 하위 영역별로 학생발달 단계별 성취기준은 무엇인지, 이에 맞는 교육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도출해냈고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으로 구현해야 할지 다양한 수업모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그 동안의 산발적인 연구와 실천 성과를 모으고 정리해서 현장교사들과 함께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학교미디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며, 거기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명확해질 것이다.

/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잘 되고 있나요?”

지난 2021년 12월 27일 6개월 간 추진해 온 (가칭)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미디어 전시·체험 공간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이다 보니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었고, 공간 기획부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까지 연구과제의 범위가 넓어서 연구진의 고생이 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실제 공간에 구현하는 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점점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교육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많다.

이 산들을 결국 다 넘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충북학교미디어센터가 충북의 학생과 교사들의 미디어교육을 만족스럽게 지원하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도 하고, 오랫동안 미디어교육을 실천한 교사와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도 받고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든다. 미디어환경이 점점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데다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흐름을 읽고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충분한 미디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산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는 필수일 텐데, 어떤 형태의 운영 모델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외부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할지 막막하다. 이 고민을 포함해서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센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애초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 교육부가 공모에 선정돼 설립되는 대구, 경기,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세 곳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성장 모델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영화를 만들며 행복했던 교사로서, 지금처럼 교육부에서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명시되는 미디어교육의 황금기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업무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교육을 부수적인 교육, 심지어 불온한 교육으로 매도하던 시절을 묵묵히 견디며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미디어교육을 풍부하게 성장시킨 수많은 연구자와 교육자, 활동가 분들과 감사드린다. 그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행복한 미디어교육을 실천하고 꿈꾸고 있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 제정의 의의

배 상 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분석 능력을 함양하고, 디지털 공간이 건전한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효과적인 미디어교육을 이루기 위한 국내의 법적 기반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미디어교육 관련 각종 사업들의 추진과 시행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미디어교육의 근거 및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교육법이 마련되어야 미디어교육의 기반 구축은 물론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7년 이경숙 의원이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 그 동안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사회적 무관심과 관련 주체들 간의 이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 내용 요소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시켰을 만큼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니즈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7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 들어 부산, 전남, 광주, 서울 등 10여 개 지자체 의회들은 경쟁하듯 지자체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있다. 이렇듯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저변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11월 16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21대 국회에서만 두 건의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안이 상정될 만큼 미디어교육은 교육 현장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총 152명의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였

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총 16가지 관련 정책들 중 ‘미디어교육법 제정’을 4위로 꼽았다. ‘미디어교육법 제정’은 2위를 차지한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목으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본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대분류		중분류		영향값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지표	중요도		
법제·정책	0.337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0.189	0.0637	7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0.340	0.1146	2
		입사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	0.204	0.0685	5
		미디어교육법 제정	0.267	0.0897	4
거버넌스·인프라	0.194	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	0.351	0.0679	6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	0.228	0.0441	11
		지자체별 미디어교육 협의체 운영	0.168	0.0325	13
		통합지원 플랫폼/통합아카이브 구축	0.254	0.0491	10
학교·가정	0.361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0.153	0.0551	8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446	0.1609	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256	0.0924	3
		부모의 적절한 자녀 미디어 이용 중재/개입	0.146	0.0527	9
미디어기업·단체	0.109	미디어기업/언론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0.275	0.0299	14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관리	0.324	0.0352	12
		지역 미디어(영상)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	0.188	0.0205	16
		민·관 협력체계 구축	0.213	0.0232	15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과제들에 대한 중요도(이행의 파급력) 및 성취도(현재 달성 수준)를 매트릭스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미디어교육법 특히 학교미디어교육 시행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큰 반면 실제 성취수준은 매우 부족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디어교육 제도화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와 ‘학교미디어교육 시행 법률’ 마련이 중요도 면에서 총 16개 정책 과제 중 Top 5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실행정도 면에서는 Bottom 5에 랭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련 법률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계부처 간 독자적·분절적 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저해,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정책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 마련과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두 건의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2020년에 상정된 정필모 의원 안은 20대 국회의 신경민 의원 안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두 의원이 모두 방송기자 및 앵커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방통위를 주관부처로 지정한 내용 등은 두 법률안이 동일하다. 반면, 가장 최근에 상정된 권인숙 의원의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동명의 유은혜 의원 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소관 부처를 포함한 관련 주체들 간의 이견과 대립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미디어교육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경숙 의원 안, 김희정 의원 안), 방송통신위원회(신경민 의원 안, 정필모 의원 안) 등 단일부처에 두는 안과, 최민희(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유은혜 의원 안(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공동)과 같이 복수의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에 대한 공방이 있어왔다.

체계성과 효과성을 갖춘 미디어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법제 정비와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필모 의원 안보다 권인숙 의원 안이 국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추진체계의 효과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권인숙 의원 안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장을 맡고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지휘하며, 미디어교육 주관기관으로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가 공동주관하는 삼두체제로서 우리나라의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을 진두지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디어교육의 핵심 대상인 초·중등 교육 주관부처의 장이자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정책 조정과 관계 부처 간 협력 유도를 담당하는 사회부총리가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의 상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부 장관인 사회부총리가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을 때, 사회 미디어교육보다 학교미디어교육에 편중될 수 있어, 유은혜 의원 안처럼 국무총리 산하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균형감을 갖고 미디어교육 정책을 조율하는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권인숙 의원 안은 미디어교육의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로 하여금 미디어교육 공동주관토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교

통정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세 개의 부처를 위시한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가 구체화되지 않을 시 부처별 주도권 다툼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미디어교육위원회와 사회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미디어교육을 구분하고 학교미디어교육 관련 교육과정, 학교장의 성과보고 및 미디어교육사 배치 의무화 등을 법률안에 구체화하였다. 권인숙 의원 안은 이 같은 학교미디어교육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미디어교육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학교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적 제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민관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외에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타 부처 관계자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미디어환경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9월에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는 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과 이해 및 비판 능력을 향상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등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시행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초중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그리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미디어교육에 한정된 법률만으로는 이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최근의 미디어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교육의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미디어교육 정책은 다부처 간의 연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와 개인(아동, 청소년, 성인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상술한 법안 통과와 컨트롤타워 구축

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복된 사업과 프로그램 및 시설 구축에 드는 예산낭비를 막고, 미디어교육 사각지대를 찾아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구성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직결된다. 민주적 소통능력을 키우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세미나 토론문¹⁾

오 정 훈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1. 미디어-정보 홍수 시대, 일상의 변화

(1)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이동, 스마트폰 중심의 개인화

- 가구 인터넷 접속률 97.7% (국내 1,984만 가구 중 1,980만 가구)²⁾
- 인터넷 이용자 수(이용률) 91.9%(만3세 이상 5,097만명 중, 약4,681만명)
- 5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 증가(60대 91.5%)
-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91.5%

(2) 생활의 변화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1조 9,618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4.5% 증가하였고,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8조 1,436억 원으로 68.1%를 차지하였다.³⁾
- "손님, 여긴 QR 코드 없으면 입장이 안 되세요." "도와드릴까요?"⁴⁾
노년층 소외시키는, 무심한 무인(無人) 시스템...모르면 불편한 걸 넘어 '불가능'하거나 '손해'

(3) 새로운 문제들

- 프랑스에서 평균 다섯 명의 응답자 중 네 명은 인터넷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진위에

1) 이 글은 필자의 소속 기관의 공식입장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힘

2) (202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지표 인포그래픽 및 심층분석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3) (2020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 보도자료, 통계청. 2020. 4. 3.)

4)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1.0317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고(87%), 그중 다수(59%)는 정보무질서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 내 인터넷 사용자 중 17% 만이 인터넷이 자신의 의견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에 대한 불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⁵⁾

· Youtube 시민(?)

‘유튜브코리아는 약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이나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유튜버들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⁶⁾

‘유튜브, 가짜 뉴스 확산 멈추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⁷⁾

· 전지구적 콘텐츠 생산과 소비

세계 OTT 시장규모 2020년 기준 약 1,336억원 달러(한화 약 151조)로 추정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 41%, 20~30대 연령이 주로 이용
국내 OTT 서비스 시장규모 약 5,136억원 추정⁸⁾
국내 가입자 수 약 1613만 추정⁹⁾

※ 2019년 말 기준 방송시장의 방송사업매출액은 17조 6,717억 원이며, 방송사업 사업체는 총 404개 (전광판 방송사업자 제외)¹⁰⁾

· 디지털 문해력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마져...OECD 바닥권

OECD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 식별률도 최하위(25.6%)를 기록했다.

(2021-12-18, 권선미, 연합뉴스)

2. 미디어교육 입법과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1) 권인숙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7.14. 발의)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분별력 있는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

5) (온라인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엠네스티)

6)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금지한다고?...‘혼란’ 부추긴 약관 개정,이학준, 뉴스핌, 2019.12.11)

7) (유튜브: 가짜뉴스 확산에 유튜브는 책임이 있을까, 로리 셀란-존스, BBC 코리아, 2018.11.25.)

8) (국내 OTT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최세경, 한국언론학회, 2020)

9) (팬데믹 이후 한국 OTT 서비스와 5G 기술 동향, 장성욱외,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0.09)

10)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p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2020)

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질 필요

(2)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2020.07.1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2021.01.0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02.16.)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2021.02.18)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1.03.25)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2021.06.30.)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1.07.2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1.09.27.)

3.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학교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와 교육 실험 진흥

학교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와 교육 실험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대전 지역 교사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일선 교사들에게 미디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활용 수업이거나, 미디어 제작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음. 또 각 교과에 연관된 단원들이 연결성을 갖기보다는 분절적으로 해당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원 연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2) 교육부 + 교육청

각 교육청별로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해져야 함. (대전은 중등교

육과, 서울교육청은 혁신교육과,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청마다 조직 편제가 다른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교육부 차원에서 각 교육청별 담당 부서와 장학사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실행을 위한 행정 체계를 수립하는 바람직함. 이를 통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공동체, 연구회가 교육청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정책 자문단 혹은 기획위원회, 연구 등이 교육부-교육청별로 동시 운영되는 것이 좋겠음.

(3) 교육 아카이브 및 전문 연구-평가 기관의 필요성

학교 교사의 미디어교육을 평가하고, 학습결과와 활동들을 축적하는 아카이브/연구원 등을 운영하면서, 체계성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기능이 필요함.

(4) 지역사회 미디어교육 협력체계 구축

학교는 지역, 마을과 떨어져 운영될 수 없음.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성을 만드는 것이면서, 현실과 교육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을 만드는 것임. 지역마다 이미 미디어교육을 실행,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센터가 있음. 미디어센터의 인적 물적 자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학교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면, 효율적이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청과 지역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협력 지원 체계를 만들면서, 개별 학교와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5) 학부모 교육과 포용적 청소년 미디어교육

학부모 교육의 경우는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단체, 미디어교육 지원기관 등 각 기관의 역할과 학부모의 조건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고, 자율적 학부모(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진흥하는 것을 모색. 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안팎의 노력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현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에서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만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최소한 학교 안의 관점이더라도 학교밖을 함께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이는 2019 교육부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계획에서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지원'이라는 전략과제가 있음)

(6) 청소년의 직접적 참여

미디어를 순응적 혹은 저항적 이용자로서 청소년을 위치 짓기도 하지만, 미디어 생산자/참여자로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 참여와 행동이 가능한 주체로 봐야 함. 이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참고: [그림책] 초등학생들이 밝힌다! IT의 성차별 핫IT슈

<https://bit.ly/3n7w6eA>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시리, 빅스비, 애플워치, 챗봇에 성차별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IT에서 출시한 기술 및 서비스에는 이미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학습된다면 더욱 무서운 일들이 펼쳐지겠지요.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서울방화초등학교 5학년 1반)

(7)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

미디어 생태계의 지배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디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되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청소년 미디어 리더십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음.

토 론 문

이 수 민 | 효양고등학교 학생

안녕하세요 효양고등학교 이수민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의 실태와 미디어 문해력 수준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상을 미디어로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으로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에 가면 교육자료를 찾기 위해 검색도 해봅니다. 집에 들어가면 친구들과 SNS로 소통하기도 하고, 실시간 검색어에 들어간 기사를 찾고 지인들에게 공유하며 이야기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상인 IT강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최하위수준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기사,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믿고 공유합니다. 학생들의 관심사, 예를들어 연예인에 대한 사건이 터졌을 경우 그 하루는 그 기사 속 이야기로 학교가 시끌벅적합니다.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한 진위판정에는 관심이 없고, 잘잘못만 따지며 그 이후 나오는 모든 기사를 그대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학생들과 시민들을 타겟으로 하는 기자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데에 급급하고 결국 이런 악순환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까지 오면서 받아온 미디어 교육은 출처, 미디어 매체와 같이 지식을 전달하여 교과 시험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하였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디어의 장점에 대해 배우고, 미디어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배우고, 미디어의 종류를 나열하여 외우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도 집에 들어가 허위 기사를 공유하는 것이 현 청소년의 실상입니다. 이제는 미디어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미디어에서 마주칠 여러 가짜 기사를 거를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실질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 미디어의 교육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미디어 수업은 복잡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쉽게는 효양고등학교 교목찾기부터 나중에 가서는 처음 들어보는 정부기관 소속 대표 찾기까지 도전해봤던 수업이었습니다. 또,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반 친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도를 조사하고 SNS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듣고 앞으로의 바른 SNS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고민해보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미디어의 영향력을 몸소 이해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며 스스로 책을 찾아보거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도 미디어에 관심있었던 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멈췄고, 늘 단기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 미디어 분야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활동에 대한 적극성도 부족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더 효율적인 미디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디어 교육은 중고등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초등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SNS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미디어에 올렸을 때의 파급력에 대한 무지 또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어나는 사건사고들도 많습니다.

지속성과 교육격차의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미디어교육 정책

이 귀 영 | 양현고등학교 교사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2021.11.24.)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디지털 기기 마련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현장에서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미디어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속성과 교육 격차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미디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나 교육부 내 미디어 교육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갖춰야 할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미디어교육을 영상 제작이나 가짜뉴스 판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미디어교육 지원이 곧 디지털 장비 구축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교대 및 국립대 사범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래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전문 장비 활용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도 있어 방향성과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학교 미디어교육센터 역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담당자의 주기적인 교체와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차이로 인해 정책 추진 방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운영 가능한 지역 자원에 의지하는 수준에 그치기도 한다. 2021년에 지급되었던 미디어교육 관련 예산이 2022년 대폭 감축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이다.

학교미디어교육을 추진하는 방향과 깊이에서 지역별 격차가 벌써부터 눈에 보이고 있다.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디어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회적인 미디어 교육 사업에 그치는 지역이 있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2021.11.24.)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학교미디어교육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디어 교육(매체 교육)’이 외적 논리에 의해 편성과 삭제를 되풀이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강조가 달라진다면 학교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과정 내에서 미디어 교육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미디어 교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려면 홍보나 연수 이전에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생 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격차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학생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 칭하며 미디어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러한 인식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학교에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받은 경험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의 차이까지 더해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 내용과 방법은 학생들 간 격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기초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문해력이 낮은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역시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귀 기울여야 한다. 미디어 이용은 일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필수적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과 미디어 교육 경험 수준에 맞춘 교육 방법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시민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그동안 학교미디어 교육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을 지속성과 교육 격차라는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내실 있는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elow the memo board.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세미나 자료집 22-S02

2022 학교미디어교육 자료집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인 쇄 2022년 1월

발 행 2022년 1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인교육대학교



권인숙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홍정민 의원실